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내일의 나를 위한 선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March 8 2024 Vol. 905

"믿음의 기도.. 그리고 약자들을 섬겨 복음 전파에 매진하길"


나성순복음교회가 설립 50주년 희년감사예배를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성대히 드렸다. ⓒ기독일보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가 설립 50주년 희년감사예배를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성대히 드렸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행 2:42-47)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 외에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한다. 초대교회가 많은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 전부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제자들과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깨어있기를 바란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므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주님과 대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다.

또 그는 "부부,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 바란다.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면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 토요일에 오후 내내 기도하고 주일 설교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년에 350억원 정도를 구제와 선교에 쓰고 있다. 어느 교회에 방문했었는데 새신자가 3천명이 넘었다는 것을 듣고 놀랐었다. 이 교회는 나눔의 방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자기 집에 쓰지 않는 것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가져가게 하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교회는 많은 이들을 품었고 과부들을 섬겼다. 나성순복음교회가 엘에이를 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서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복음을 온천하에 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6면에서 계속

영국성공회, 노예무역 배상 기금 1조 7000억 배정

영국성공회(Church of England)가 대서양 노예 무역과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억 파운드(한화 1조 7000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 요구한 최근 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독립 자문가로 구성된 감독 그룹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성공회가 '치유, 복구 및 정의 기금'에 대한 1억 파운드(1700억 원) 규모의 약정이 "위원들의 기부금 규모나 도덕적인 죄와 범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성공회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토지 보조금을 제공하고 교육, 경제적 역량 강화, 건강 개선을 중점으로 둔 흑인 소유 기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국성공회에 기금 조성을 앞당겨 올해 말에 사용 가능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처음 계획된 기간보다 9년 더 빠른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흑인 아프리카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역사적으로 부정한 행위, 다양한 아프리카의 종교 신념 체계를 파괴하고,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복음과 아프리카 선조들의 다양한 영적 실천과의 영적 연결을 촉진하는 데 일조한 고의적 행위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조사의 결과로, 영국성공회가 약 3만 4000명의 노예를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운송한 것으로 알려진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에 40만 6492파운드(현재 가치로 약 7억 24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성공회 대변인은 보고서에서 요구된 10억 파운드가 아닌 1억 파운드로 배상 기금을 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감독 그룹의 의장인 로즈메리 말렛 주교는 보고서가 "다른 기관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공동체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도록 격려하는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국성공회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2022년에 성공회와 차텔 노예제(chattel slavery)와의 연관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노예제에 연루된 성공회의 과오를 "끔찍한 악"이라고 규탄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세대를 초월한 대응의 시작"이라며 환영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 / 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1만 명 서명 도달...7만명 서명 받으려면 최선 다해야”

서명운동 중간 점검, 서명운동본부 조찬기도회 및 기자 간담회



캘리포니아 자녀보호 주민발의 신청서 서명운동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지난 3월 4일(월) 오전 7시 20분 뉴서울호텔 식당에서 조찬기도회로 모여 한 달을 달려온 서명운동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

캘리포니아 자녀 보호 주민발의 신청서 서명운동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지난 3월 4일(월) 오전 7시 20분 뉴서울호텔 식당에서 언론사 초청 조찬기도회로 모여 한 달을 달려온 서명운동 중간 상황을 점검하고 3월을 보낼 전략을 소개했다.

서명운동본부 회계인 박세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양경선 목사의 기도에 이어 강순영 목사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악법들을 저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다“라고 설교했다.

2부 기도회에서 서명운동본부 김요셉 목사가 ‘서명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동참케 하소서!’ 라고 합심기도를 드리고 샘신 목사(서명운동본부 실행위원, 남가주교협 부회장)가 대표로 기도했다.

3부 현황 보고는 서명운동본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가 진행했다. 강태광 목사는 중가주, 남가주, 샌디에고 지역과, 동부 LA, 밸리 지역, 사우스베이 목회자 모임에서 상황 보고 및 서명방법을 안내했고, 북가주에는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가 개별 접촉하며 서명운동참여를 권면하고 있다고 했다. 교단별 접촉은 다소 저조한데 PCA 한인 노회, CRC 노회, 침례 지방회 등등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우남회, 탈북자 모임에서 운동본부 실행위원들이 홍보하였다고 했다.

현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한인교회, 감사한인 교회, 주님세운 교회, 나성 순복음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등에서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부에나팍 시온마켓, 부에나팍 한남체인, 토렌스 한남체인, LA 킴스전기 등 마켓을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도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강 목사는 공식적인 통계로 1만명이 서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며, “5만~7만명의 서명은 최선을 다해야 가능하다”며 지나친 낙관론과,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운동본부 실행위원 양경선 목사가 서명방법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민선 기자

문의: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310-995-3936)

청원서 서명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인교회에 기도의 불을!” 미주 다니엘기도회 첫 진행

“기도와 감사는 최고의 습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 못 해” 다니엘기도회 올해 비전은 국제화 · 세계화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댈러스 세미한교회에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다니엘 기도회

‘미주 다니엘기도회’가 댈러스 세미한교회(이은상 목사)에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다니엘기도회가 미주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미주 다니엘기도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인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원로)를 시작으로 이용훈 성악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용규 선교사, 지선 전도사,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와 오윤아 집사가 강사로 섰다.

기도회 첫째 날, 다니엘 6장 10절 본문,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은호 목사는 “결국은 습관이 나를 만든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라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다니엘에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포로였음에도 총리가 되었는데,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다.

그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이 많았다. 수는 질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기도하는 횟수만큼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근육이 더 많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분과의 친밀함이 더 생기고 그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하루 세 번씩 기도한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영성이 있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우리도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간혹 사역이 너무 많고 바빠서 기도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사역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다니엘에겐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 감사는 믿음과 신앙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감사했다. 감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감사는 습관화 되고 체질화 되어야 한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과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생긴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한다”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건 감사의 기도”라고 했다.

그는 “기도와 감사는 최고의 습관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기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러야 한다”고 전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모금된 헌금은 미주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수술과 치료 등을 돕는 데 사용된다.

다니엘기도회는 서울 오륜교회(주경훈 목사)를 중심으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 초교파 기도회다. 현재까지 26년간 이어져 왔다.

주성하 목사(운영팀장)는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는 2024년을 ‘다니엘기도회 2.0시대’로 선포하며 국제화 세계화라는 비전을 품고 달라간다. 이제는 한국 교회분만 아니라 열방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의 연합과 기도운동을 위해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고 전했으며 김은호 목사는 “미주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길 소망하며, 미주 한인교회들이 연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장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 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 럭스 교수, Ph.D
(풀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라 아도요 교수, DMiss
(풀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한우리 교수, Ph.D.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실천신학

온라인 수업 제공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2024년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봄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4년 2월 19일 (월) - 3월 15일 (금)
합격자 발표	2024년 3월 22일 (금)

■ 봄 학기 일정(10주)
2024년 4월 1일 (월)- 6월 7일 (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명예이사장 이영훈, Ph.D.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유수한 연방인가기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ITS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학생 후원자”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신학생을 지원하여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한반도 평화, 한인사회가 어려운 이들 보듬는 데에서 시작”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가 3월 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진행됐다. ⓒ기독일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가 3월 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 본당에서 진행됐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진유철 목사(성시화운동봉부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강사로 섰다.

기도회는 송정명 목사의 환영인사, 양승호 목사(여의도순음동부교회 담임, 북미총회 증경회장)의 대표 기도, 김재권 장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성경봉독(요 8:31-32), 연합성가대의 특송,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제작한 영상 상영, 안현 목사(달라스안디옥순복음교회, 순복음 북미총회장)의 강사 소개, 이영훈 목사의 말씀, 통성기도, LM 어린이 성가대 특별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송정명 목사는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024년이 불확실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세계 각처에 선거가 있다, 3월 5일 남가주 지역 예비 선거, 4월에는 한국에 총선이 있다. 11월에는 미국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요 8:31~32절을 본문으로, 〈진리와 자유〉라는 주제로,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 기초해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의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공황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마약과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복음의 빚을 졌다. 140년전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미국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물질적 풍요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는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1960년대 히피문화가 시작됐다. 그들은 기존 질서와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황폐하지고 깊은 절망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 운동이 시작됐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찾게 되었다.”

이영훈 목사는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애틀 갈보리 채플 담임 목사 딸의 탈동성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부연했다.

“시애틀 갈보리 채플의 웨인 케일러 목사의 딸은 어릴 때부터 남성적인 성향이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농구부를 하며 레즈비언이 되었다. 이 목사 부부가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다. 어느날 그 딸이 기도하는데, 자신이 레즈비언으로 사는 동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탈동성애를 할 수 있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이다. 내 삶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이다.”

이어서, 연방하원의원 지미 고메즈, LA검사장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김영완 LA총영사의 축하인사를 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정화되는 느낌이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민자들에게 정신적으로는 안식, 물질적으로 큰 위안을 줬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 기도회를 위해 모였다. 저는 한인 이민사회가 화합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가난한 사람을 보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한인사회가 더울 발전할 것이고 한인사회를 기초로 한미가 교류하면서 한미관계가 튼튼해 질 것이라 믿는다. 한미의 인적인 유대관계를 한인 이민사회가 만들어주고 있다. 교회 동동체를 중심으로, 한인 이민사회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주디 한 기자

제 105주년 3.1절 기념식, “대한민국 만세”


105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지난 1일, 중가주 리틀리와 LA한인회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로스엔젤레스한인회, 대한인국민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105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지난 1일, 중가주 리틀리와 LA한인회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3.1절 기념행사는 제임스 안 회장(LA한인회)의 개회사와 클라라 원 이사장(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남가주 교민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염원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의 신앙과 애국정신을 기억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캐롤 리 회장(미주 3.1여성동지회), 김준배 회장(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 조셉 신 부지부장(흥사단LA), 데이빗 곽 회장(미주도산기념사업회), 독립운동가 김태연 선생의 증손녀 김용혜, 독립운동가 손병석 선생의 손자 손재호의 3.1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으며, 김영완 총영사(LA총영사관)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이 진행됐다.

또 차만재 박사(중가주 힌인 역사연구회)와 아니타 베탄코트 레들리 시장 (Hon. Anita Betancoult, Mayor, City of Reedley), 마리벨 레이노사 디누바 시장(Hon. Maribel Reynosa, Mayor. City of Dinuba)의 축사가 있었으며, 축하공연으로 심현정의 ‘어메이징 아리랑’ 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제창에 이어 만세 삼창을 함으로 행사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임영빈 노년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18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선착순 100명)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 베스트셀러 저서와, 〈99세까지 88하게〉 유투브 채널 구독자 17.5만 보유자인 임영빈 전문의는, 스탠퍼드 노년내과 전문의 및 UCLA 내과 전공의 수료, 로마린다 의과대학 졸업, 스탠퍼드 의과대학 우수학자상을 수상한 젊은 닥터로 한인의사협회 이사와 한미치매센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영빈 내과 원장으로, 시니어센터 이사로도 봉사하고 있다.


임영빈 노년내과 전문의가 3월 11일 월 오후 12시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일시: 3월 11일(월) 오후 12시
장소: 시니어센터 2층 강당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순희 1,004곡 창작 기념 콘서트



이순희 목사(백송교회)가 100,4곡을 창작한 기념으로 콘서트와 성령 컨퍼런스를 열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음악이 봇물터지듯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했다.

이순희 목사 1,004곡 창작 기념 콘서트 및 18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24일 오후 3시부터 3월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LA 백송교회(김성식 목사) 본당에서 진행됐다.

'기억, 인도, 성령'이라는 주제로 총 3부로 열린 이날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콘서트는 1부 '기억(Memory)'으로 문을 열었다. 1부에서는 두나미스 중창과 솔로 김성식·차유미 등 게스트들이 '백송가', '텅 빈 내 마음', '나의 욕심'을 부른 뒤 이순희 목사가 등장했다.

이순희 목사는 "LA 롱비치에서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하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교회에서 인재들이 계속 발굴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언젠가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악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다. 요즘에는 10분에 한 곡씩 써지고 있다. 가사는 대체로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찬양을 부르고 듣는 중에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길 바란다"며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이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완성된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천군천사와 목자들의 찬송으로 가득했고,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가는 곳마다 찬미가 끊이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의 천국 대예배에도 천사들의 대합창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며 "우리는 찬양할 때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풀리며, 영적 감각이 깨어나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큰 소리로 찬양했더니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들었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찬양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직접 작사 작곡한 '내 인생 행복의 꽃', '고난의 밤에', '내 영혼의 밀실까지' 등을 불렀고, 이금종 작사/곡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그리고 찬송가 '죄 짐 맡은 우리 구주'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등을 편곡해 새 노래로 함께 불렀다.

2부 '인도(Guidance)'도 게스트들의 무대로 시작했다. 마카리오스는 워십 'Wake', 박재하·배성연 솔로는 '소망 없는 나의 삶에'와 '길 잃은 양처럼'을 선사했다.

이후 이순희 목사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십자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 등을 열창했다.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편곡 버전을 부른 다음,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자다가 깰 때라' 등을 선물했다. 이후 '깨어나라', '치료의 광선', '행복의 원천', '똑똑똑' 등은 댄스와 함께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부 '성령(Holy Spirit)'은 두나미스 중창 '성령의 뜨거운 불', 박진호·김성식 솔로의 '캄캄한 어둠이 드리우고', '헛된 목표와 목적 향해' 등을 불렀다. 이어서 이순희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복음을 전파하라'를 두 여성과 함께 트리오로 하모니를 선사했다. 이후 '성령의 그 능력은', '성령님 바람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불은', '빛을 발하라' 등 자작곡 행진이 이어졌다.

끝으로 율동팀이 함께 '주 예수 내 맘에', '나 주의 믿음 갖고'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마지막 곡은 '실로암'이었다.

한편, LA백송교회는 2월 25일(주일)부터 3월 6일(수)까지 18차 성령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뿌리 깊은 상처의 치유〉, 〈생명을 위한 깨어짐〉,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신유로 이어지는 성결〉, 〈부흥의 불, 전도의 불〉, 〈승리를 부르는 분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은사와 영적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대웅 기자



센터메디컬 10주년 쎄시봉 콘서트, 무료티켓 신청하세요!



남가주와 북가주 지역의 유일한 시니어 전문 메디컬그룹인, 센터메디컬그룹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이에 센터메디컬그룹은 가입환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쎄시봉 콘서트이다. 3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야마바극장에서 열릴 이 콘서트는, 윤형주, 조영남, 김세환의 마지막 미주 콘서트가 될 예정이다.

더욱이 센터메디컬그룹은 가입환자들에게 무료 티켓을 배포하고 있다. 가입 환자들은 간단하게 문의전화로 전화를 걸면 신청접수를 할 수 있으며, 추후 LA지역과 OC지역에서 선택하여 티켓을 픽업할 수 있다. 물론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가 아니더라도 야마바극장 웹사이트에 들어가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센터메디컬그룹에서는 일일관광, 골프대회, 무료 유방감검사 및 다른 콘서트들도 계획하여10주년인 2024년을 풍성하게 보낼 예정이다.더 많은 혜택들이 궁금하다면 센터메디컬그룹으로 문의하면 된다.

〈쎄시봉 콘서트〉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 무료
3/16(토) 오후 7시, 야마바 극장 (777 San Manuel Blvd S, Highland, CA 92346) 무료
티켓 신청 : 714-904-1701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센터메디컬그룹

제 1회

센터메디컬그룹배 3쿠션 시니어 당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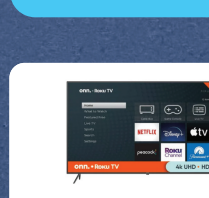
참가비 NO!
참여자 모두에게
푸짐한 선물이 듬뿍!

2024년 4월 10일 (수) 오후 1시
NICE Q 당구장
(2877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신청조건 만 64세 이상의 시니어 (선착순 64명)

참가비 무료

상품 1등 - 65” TV / 2등 - 녹용홍삼세트 / 3, 4등 - 마사지건
그외에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이 듬뿍!


1위 / TV


2위 / 녹용홍삼


3, 4위 / 마사지건



다양한 구디백 상품

이외에도 참가자 전원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문의 및 참가신청 714-904-1701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쎄시봉 콘서트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하는”

쎄시봉

2024년 3월 16일 (토) 19시 야마바 극장

공연 정보
★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 야마바 극장
(777 San Manuel Blvd S, Highland, CA 92346)

티켓 안내
★ 무료 입장
(센터메디컬그룹 가입된 환자 only)
★ 티켓 구매
(센터메디컬그룹 미가입자분들은 야마바 극장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
선착순이 다 차기 전에 무료 예약 전화 주세요!
★ 714-904-1701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주최 · 주관 | 센터메디컬그룹 Center MEDICAL GROUP IPA
장소 | 야마바리조트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

“가족을 사역의 제물로” … 노년 목회자들의 후회 5가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당신이 갖게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가 쓴 ‘노년의 목회자들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마테라 박사는 뉴욕시에 있는 부활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미국 사도지도자연합’(USCAL)과 ‘그리스도언약연합’(CCC)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해당 칼럼의 요약.

1. 배우자와 자녀를 사역의 제물로 바쳤다

교회에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목회자가 항상 책임을 져야 하는 보장된 사람들은 단 하나다. 바로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너무 의욕적이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함께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세우기 위해 전부를 희생한다.

2. 사람보다 프로그램을 우선시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종종 흥미진진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집중력은 담임목사가 멘토링하고,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실현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한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프로그램을 중심 삼아 교회 비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주요 헌신 리더들과 떠오르는 리더들을 불필요하게 소모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그들의 전성기를 지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한 상태일 것이다.

3. 잠재적인 리더들에 집중하는 대신, 교회 전체를 혼자서 돌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담임목사들은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실제로 제자로 성장하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오래 전에 나는 사탄이 나를 지치게 하려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담에 상당한 시간을 쏟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나는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향한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온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실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훈계했다.

담임목사들은 바울의 이 구절대로 디모데에게 시간을 쏟으라고 훈계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나머지 교인들을 목양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젊은이들과 친구가 된 적이 없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자신이 후회하는 점 중 하나는 젊은 목사들과 교류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나는 떠오르는 젊은 리더들을 지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말년에도 내 나이의 절반인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영광을 얻은 후에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5. 아들과 딸 대신 신실한 교인들을 키웠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70명, 그 다음 12명,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핵심 3인방을 데리고 다니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내 인생에는 의사, 감독, 목회자, 목사님 등 많은 직함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함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이다! 하나님은 결코 의사, 사도, 주교, 혹은 ‘하늘의 위대하신 장군’으로 불리지 않으신다! 아버지(혹은 여성 목회자라면 어머니)는 교인들 사이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황혼기에 요한 사도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아는 것이 지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요한삼서 1:4). 몇 년 전, 나는 호텔 방에서 나보다 최소 20살 이상 많은 두 명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분들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잘 마무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들은 노년의 목회자들이 말년에 주변에 영적인 아들과 딸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 그들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만들지 않는다면 인생의 황혼기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왔다가 갈지 모르지만, 당신이 전임 교회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영적인 아들과 딸들은 영원히 당신 삶의 일부로 남아 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될 때, 당신이 갖게 될 유일한 소중한 추억과 가장 귀중한 것은 당신이 책임졌던 주요한 관계들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아름다운 대성당, 집, 자동차, 돈 등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만이 함께 갈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닫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김유진 기자

2023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81곳



2018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금 수여식 ⓒmyopenbank.com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 역대 최대 지원단체와 지원금을 기록했다.

매년 커뮤니티를 향한 사회환원에 힘쓰고 있는 오픈뱅크(행장 민김)와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도은석)은 28일 2023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3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로 총 81곳이 선정이 돼 지난 2011년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이후 역대 최다 수혜단체수를 기록했다.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액도 45만5500달러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오픈뱅크는 2011년부터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수익의 10%를 매년 오픈청지기재단에 기부해왔고 2023년까지 13년 동안 누적 기부금이 1666만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커뮤니티에 기부한 총금액은 63만7500달러이며 13년 누적 기부액은 576만달러를 돌파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우편 접수와 웹사이트를 통한 업로드와 이메일을 통한 접수를 병행했다. 이 결과 지원 신청 단체 수가 거의 100개 단체에 이를 만큼 관심도가 높았고 특히 신규 신청 단체 수도 35개나 되었다.

오픈청지기재단의 도은석 이사장은 “올해는 모든 서류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서 심사를 진행한 만큼 제출 서류부터 보다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한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앞으로 업무 처리, 지원금 신청 및 기부자와 지원자 물색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며 효율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앞으로도 비영리단체들이 발전하고 시스템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도 “그동안 움추렸던 비영리단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온라인 접수를 오픈하면서 한인 비영리단체 뿐만아니라 많은 타 커뮤니티 비영리단체들도 신청했다. 이들 단체들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측은 올해도 지원금 전달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선정된 단체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전달한다. 김민선 기자

제11회 효사랑 청소년 글짓기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주최하는 제11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글짓기 그림 공모전이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에 주역이 되도록 돕기 행사이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주제를 통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 비전을 갖기를 바란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2명(각부분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Haven 상(2명 11Grade에 한함)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지역 정치인이 수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상장을 받게 된다. 참가 대상은 미주 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타주 청소년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 상장과 상품이 집으로 우송된다.

참가 대상은 Kindergarden부터 12학년까지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30일(토)까지이다. 작품 제출 방법은 글짓기는 이메일(hyosarangus@gmail.com)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림 작품 제출은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11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문의 : 효사랑선교회 (Hyosarangus Mission)
주소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전화 714-670-8004 Cell 714-833-2710, 562-833-5520
E-Mail : hyosarangus@gmail.com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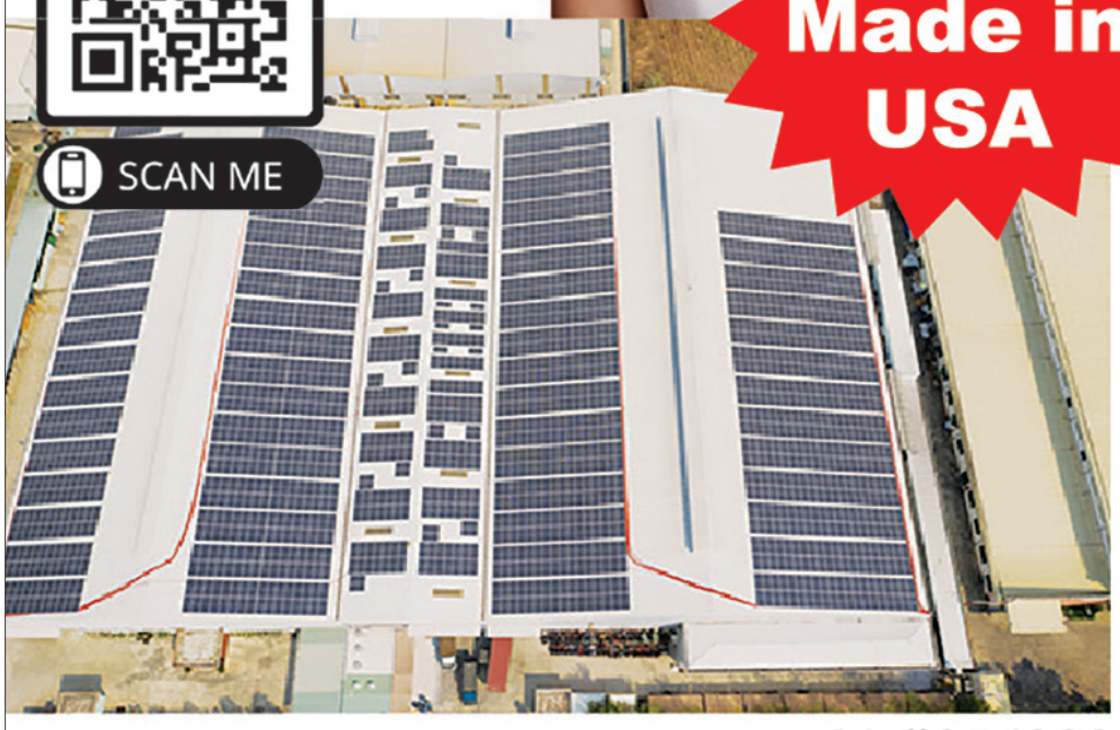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80%

연방 ITC : 30% 이상
쏠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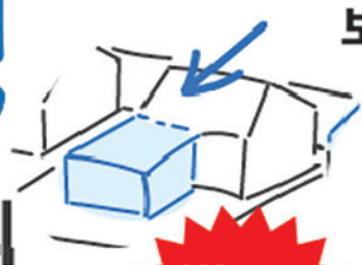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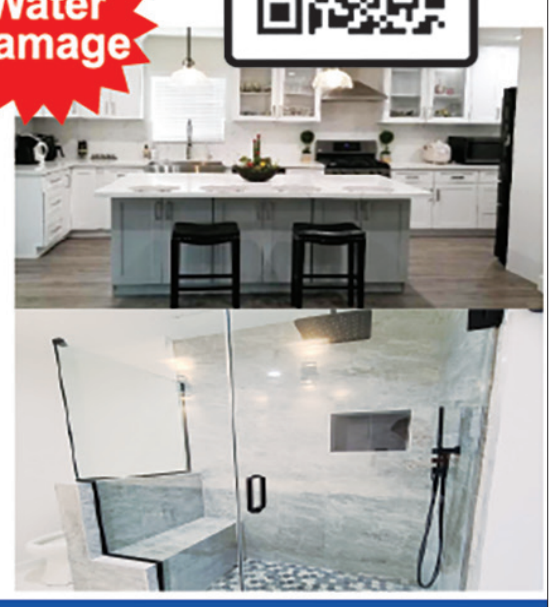
Water Damage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Lic#854389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K-Urban Builders Inc.

견적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성경, 통전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 수 있어”

‘성경, 빅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시온주의 창시자 테오도어 헤르츨
유럽의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비판



〈성경, 빅픽처를 보라!〉 제 18차 저자 세미나가 2월 26~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LA 또감사교회에서 열렸다. 단체 사진, 맨 앞줄 왼쪽부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이정현 총장(KAPC 개혁장로회 신학대학원), 김인식 목사, 송정명 목사. ⓒ기독일보

1600년의 역사에 걸쳐,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저자에 의해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쓰여진 성경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을까? 김인식 목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과 계획과 의도, 방법을 알게 될 때 신앙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2월 26~27일(월~화) 김인식 목사(킹덤월드미션 대표,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의 〈성경, 빅픽처를 보라!〉 세미나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또감사교회(최경욱 목사)에서 개최됐다. 김 목사는 성경의 역사를 조망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 비전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상술했다.

그는 에덴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으며, 그를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세 가지 특징으로, 무조건성 · 일방성 · 영원성을 꼽은 후, 그 언약이 역사를 거치며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며, 이 언약이 폐기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세언약(행위 언약), 다윗언약, 새 언약(복음), 각 언약이 통합적으로 성취될 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고 말했다.

3번째 강의 〈하나님의 도시〉에서 ‘예루살렘’이 갈등과 논쟁 장소이자, 지리적 중심이며, 세계의 영적 센터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엔은 이스라엘 수도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교황은 예루살렘을 3대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로 국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지하드의 목표는 이스라엘 멸망이다. 팔레스타인은 고대 예루살렘 땅 전부를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려 한다. 세속적 인본주의적 시각에서는 다수가 이스라엘을 불법 국가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국가 수립을 반대 의견과는 반대로, “1864년 공식문서에 따르면 예루살렘 인구의 최대 다수는 유대인이었다. 유대계 오스트리아 언론인인 테오도어 헤르츨은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이며 국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 개최를 주도한다. 이 회의에서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해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고향을 만든다”는 결의를 한다. 1917년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며 이스라엘 건국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목사는 유럽 역사상 뿌리 깊었던 반유대주의를 지적했다.

“순교자 저스틴은 ‘유대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말했고,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인들과 유월절 축제를 함께 지내다가 유대 절기의 표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과 제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공범자다. 오리겐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힌산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유대적인 뿌리는 근절시키고자 했으며, 크리소스톰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제롬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며, 그들을 핍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십자군 전쟁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무슬림을 소탕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두어 불을 질렀다. 유럽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이 유포되었고, 스트라우스부르크에서 900명의 유대인이 산채로 화형되었다. 중세 유럽 종교 재판(1480년)에서 유대인 30만 명을 처형했다.”

이러한 그는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주디 한 기자

LA부흥협의회 세미나, “소수를 통해 역사하는 시대”

멜리데교회가 ‘설교 및 교회 행정학’ 세미나를 3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이하 한기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상임회장 진건호 목사) 주최로 열린 가운데 한기부 이사장 송일현 목사와 고귀남 목사가 각각 강사로 나섰다.

송일현 목사는 소수를 통해 역사하는 시대라며 오늘 자리에 임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노아의 때를 보면 노아가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나팔을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무시했다. 결국 8명의 노아의 식구들만 배에 타고 살게 됐다”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해주신 것이 복된 소식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온 것보다 큰 일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면서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픈 일이지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목사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희열이다. 이 기쁜 소식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킨 처녀와 같이 기다려야 한다. 부활 소식은 약속과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신부와 같이 단정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기부 LA지부는 앞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멜리데교회에서 ‘설교 및 교회 행정학’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세미나와 관련해 고귀남 목사는 “교회에서 재정 관리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모습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보고 느낀 목회를 있는 나누고 싶다”라고 했다.

또 고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인데, 다른 설교자의 강해 주석, 인터넷 정보 등을 짜집기를 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목사님들에게 한계점이 온다”라면서 “교인들이 은혜를 입도록 성경을 성경대로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멜리데교회가 ‘설교 및 교회 행정학’ 세미나를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 한기부 이사장 송일현 목사와 고귀남 목사가 각각 강사로 나섰다. ⓒ기독일보

문의: 310-706-7721(진건호 목사), 213-820-0003(고귀남 목사)

멜리데교회: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토마스 맹 기자

온라인 헌금 웹페이지 무료 제작 지원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가 교회 및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 및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결제 웹페이지 무료제작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온라인 Offering & Donation 웹 페이지를 추가 제작을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도 지원이 가능하여 각 교회 및 비영리 단체의 부담이 거의 없다. 각 교회 및 비영리 단체는 자체 도메인을 사용하여 홈페이지 구축를 하는 경우 도메인 비용과 초기 호스팅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또한 신청한 교회 및 비영리 단체 중에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는 경우 선착순 선정을 통해서 VISA 및 Master 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온라인 결제 POS 사용 Fee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기간은 3월 한달로 한정하며 선착순 10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이메일:icmm@churchhomepage.org , 714-393-4595(문자 연락 가능)로 하면 된다. 직접 상담은 949-667-0264 (J. Lee, JDSN)로 하면 된다. http://www.churchhomepage.org (ICMM 선교회)



아일랜드, 지난해 낙태 건수 1만 건 초과 … 합법화 이후 최고치



ⓒpixabay.com

아일랜드공화국의 2023년 낙태 건수가 8,876건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해 10,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일랜드에서 낙태 합법화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일랜드 친생명 단체인 '프로라이프 캠페인'(Pro-Life Campaign)은 "이 수치에는 병원에서 시행된 낙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낙태 건수는 10,000건을 초과할 수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해당 수치는 아일랜드 HSE(Health Service Executive)가 캐롤 놀란(Carol Nolan) 독립 TD에게 공개한 것이다. 아일랜드 매체 그립트(Gript)도 공개된 수치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 사이 405명의 의사가 1차 및 2차 낙태 상담 비용을 상환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친생명 단체인 '생명권'의 엘리스 멀로이(Eilís Mulroy)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연간 낙태율이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놀라운 추세를 목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더욱 그러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로서 낙태율을 낮추는 방안이 전국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원격 의료의 영향은 낙태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낙태 정책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건부 장관이 제정한 낙태법에서 급격하게 벗어난 것에 대해 단 한 표도 투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 보건부 장관은 "대중은 원격의료를 통해 수술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치솟는 낙태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근거 있고 실용적인 제안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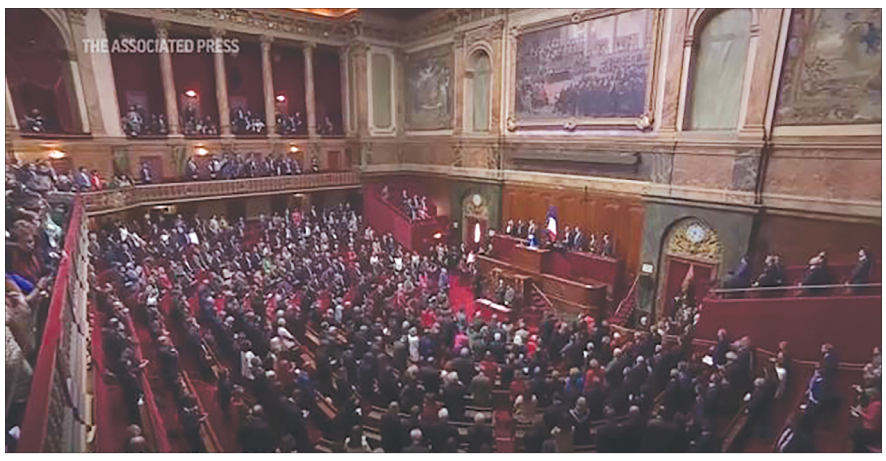
캐롤 놀란 차관은 "이제 손실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특정 상황에서 임신에 대한 유일한 대응인 낙태를 과도하게 장려하고 대안을 긍정하는 잔인한 낙태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있다. 나는 여성과 가족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계속 밝힐 것이다. 낙태 이외의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도 지원한다"고 했다.

지난해 아일랜드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검토에서는, 낙태를 시행한 의사가 임신 중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를 시행하면 기소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2022년부터 실시된 "낙태 예약과 3일의 의무 대기 기간" 이후 1,903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낙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낙태 전 3일의 대기 기간을 폐지할 것을 권장했다.

아일랜드 생명권의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 대변인은 "아일랜드에서 낙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태아의 생명은 법으로 보호됐다. 이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10,000건이 넘게 태아의 생명이 끝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 AP통신 유튜브 캡쳐

프랑스 의회가 4일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의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는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구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했다.

이날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리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리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Youth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0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교계, 기독교 세계관 회복 위한 연구소 출범



미국 댄버리 연구소의 웹사이트. ⓒ크리스천포스트

미국의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부흥시키기 위한 '댄버리 연구소'(Danbury Institute)를 출범시켰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월 29일에 공식 발표된 이 연구소는 18세기 댄버리 침례교(Danbury Baptists)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지도적인 역할에 새롭게 참여하고 유대-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 정책과 의견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연구소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종교의 자유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소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남부복음주의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의 명예 총장이자 CP 편집고문인 리처드 랜드(Richard Land) 박사가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최고운영책임자(COO)로는 콜린 헤인(Collin Hain)이 임명되었다.

리처드 랜드는 성명에서 "댄버리 연구소를 지지하고 추천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겸허함을 느낀다.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가 18세기 댄버리 침례교 조상들이 용감하게 지켜낸 영혼과 종교의 자유라는 건국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그분들의 고귀한 노력이 신성한 자유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워싱턴에서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댄버리 연구소는 공식적인 출범 이전인 처음 6주 동안에도 대외적으로 활동해왔다.

연구소는 오하이오 주에서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미성년자 성전환 반대법'(SAFE Act)을 시행하는 데 주요한 기여를 했다. 또한 연구소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in Washington)과 가족 및 종교적 가치를 해치는 입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운동에도 참여했다.

댄버리 연구소 CEO인 스콧 콜터는 성명에서 그들의 사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현재 미국의 상황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기독교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콜터는 성명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현상 유지에 안주하며 방관해 왔다"며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선대들의 희생이 눈앞에서 낭비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버지로서 나는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자녀들을 위해 보존하기 전에 포기하고 내려놓았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일어서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 소유를 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미 테네시주, 동성결혼 허가 발급 거부법 통과... "공무원의 신념 존중"


테네시주 빌 리(Bill Lee) 주지사. ⓒ빌 리 페이스북

미국 테네시 주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테네시 주의 공화당 주지사인 빌 리(Bill Lee)는 지난 28일 하원 법안 878호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테네시주 상원은 지난해 하원에서 74 대 22로 통과된 이 법안을 이달 초에 27 대 5로 승인했다.

법안에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를 진행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테네시 주에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한 테네시 주법의 주석 조항인 36-3-301을 수정했다.

테네시주 의회 재정 검토 위원회의 재정 노트에는 "제안된 법률은 테네시 주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또는 발급된 결혼 허가의 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나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 동성 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사건 이후 약 9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오버거펠 판결 이후, 켄터키주 인접 지역의 한 카운티 서기관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로웬 카운티의 킴 데이비스(Kim Davis)는 이 사건으로 2015년에 체포되어 5일간 구금되었다.

2015년 말에 켄터키 주지사로 취임한 공화당의 맷 베빈(Matt Bevin)은 카운티 서기관이 결혼 허가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켄터키주 요구 사항을 변경했다. 미국 기독교 법률 단체 '베켓종교자유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공무원이 동성 결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주는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주이다.

오버거펠 판결 이후 동성 결혼 진행을 거부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는 데이비스뿐만이 아니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법원 전문가 야닉카 파커(Yanicka Parker)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뒤 2016년에 해고됐다.

마찬가지로, 2018년 뉴욕주 루트 타운 서기관 로렐 세리 에릭센(Laurel Sherrie Eriksen)은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은 후 주정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강혜진 기자

100년 넘게 운영된 美 노틀담 대학 폐쇄 결정



오아이오 주 사이스 유클리드에 있는 노틀담 대학. ⓒnotredamecollege.edu/

100년 넘게 운영해온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가톨릭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오하이오 주 사우스 유클리드에 있는 노틀담 대학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면교육이 2024년 봄 학기 말에 종료된다고 발표했다. 노틀담 대학 임시 총장인 존 스메탄카는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슬프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은 "이번 결정은 등록 감소, 대학생 학생 수 감소, 비용 상승 및 상당한 부채와 관련된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이사회는 "대학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부채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가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대학 측은 그간 부채 재융자, 하락장 탐색, 대유행 기간 동안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코로나19 구호 자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거나 100주년 기금 모금 캠페인 시작, 가능한 합병 또는 인수를 위해 잠재적 고등 교육 파트너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요 기부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도 했다. 노틀담 대학 이사회 의장인 테리 브래드포드 이슨은 "이 긴 과정을 통해 노틀담 대학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평가했다"라며 "우리의 주된 초점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졸업하고, 노틀담 수녀회 전통에 따라 개인적, 직업적, 세계적인 책임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노틀담 대학은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9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 학생들이 대학에서 시작한 교육을 가능한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고등교육 기관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파트너 학교는 볼드윈 월리스 대학교, 클리블랜드 주립 대학교, 히람 칼리지, 존 캐롤 대학교, 켄트 주립 대학교, 레이크 이리, 우르술린 칼리지, 오하이오주 월시 대학교, 펜실베이니아주 머시허스트 대학교가 있다.

노틀담 대학은 "최소 60학점을 이수한 양호한 상태의 현재 학생들은 파트너 기관에서 중단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입학을 보장받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순수 수업료와 모든 학점의 이전이 보장될 것"이라며 "그들은 NDC와 비슷한 수준으로 학위를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美 상원, 종교 자유 침해국 제재 결의…"외교의 핵심"

미국 상원이 국제적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 및 제재 수단을 동원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도입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제임스 랭크포드(버지니아),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등이 주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종교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중추로서 국제적 종교 자유를 지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쿤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는 미국의 이상이자 정체성의 초석이다.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며,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 대한 공격을 동등하게 경고하고 규탄해야 한다"며 "미국의 국제 관계 발전에서 이것이 계속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에 양당 간의 동료들과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쿤스 상원의원과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2023년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조사한 27개 국가 및 단체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공격받은 2,200명 이상의 개인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신도 등이 포함돼 있다.

USCIRF는 또한 종교 유적지의 지속적인 파괴도 종교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고, 바꾸거나, 전혀 갖지 않을 기본 권리를 가지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실천하는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박해한다"며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적 지도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움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인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1786년에 버지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미국의 종교 자유를 기초로 했다고 말했다.

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러한 선례가 미국을 종교 자유가 없는 곳에 살아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며 "다양한 신앙을 가진 개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체, 학교, 직장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보여 줬다"고 했다. 미국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CEO인 크리스틴 와고너도 이 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특히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니카라과의 종교 자유 침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국가들이 신성모독법을 집행하며 시민들을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P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는 작년에 7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했으며,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플래토주에서 최소 200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파키스탄의 소수종교 여성과 소녀들은 무슬림들로부터 살해, 강제 개종, 성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박해를 겪고 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은 이러한 개인들의 법적 변호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성모독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자유 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유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 (714)853-4030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6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쑥뜸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건강한 사역자와 사역지를 찾아서5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알려진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는 늘 설교에 골몰한다. 매주 설교를 열면서 들려주는 예화는 웬만한 독서가나 정보 수집가도 접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다. 박성근 목사는 신문, 방송, 독서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신선한 스토리를 들려준다.

박성근 목사는 인문학적 소양도 탁월하다. 늘 많은 책을 읽고 정리하는 독서가다. 그는 신학 서적은 물론 다양한 서적을 탐독한다. 박목사는 학창시절에 많은 인문학 고전을 탐독했다. 설교를 준비하며 오래전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펼쳐서 다시 팩트를 확인하지만, 그 젊은 날의 독서가 설교의 힘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대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박 목사는 이 시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안다. 박성근 목사는 그래서 성도들의 갈증을 해갈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박성근 목사의 설교는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박성근 목사는 목회하면 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래서 박목사는 자신이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깊은 기도 생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매년 8월에는 〈중보 기도 축제〉로 매 주일 오후 기도회를 인도한다. 중보기도축제는 새누리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모든 성도가 동참한다. 2023년 8월의 경우 매주일 1천명 이상이 모여서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박성근 목사는 올해 42년째 목회하고 있다. 박성근 목사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달라스 지역에 8년간 목회를 했고, 박사학위 코스웍을 마치고 청빙을 받아 새누리에서 목회한 지 34년째다. 목회자로 살아온 42년의 세월에서 박성근 목사는 설교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박목사는 "목회를 42년간 했는데 아직도 목회가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한다. 그의 겸손이 엿보이는 고백이다.

박성근 목사는 행복한 목회자다. 42년을 해도 자신이 없을 만큼 목회가 어렵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목회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박목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목회자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목회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의 변화와 성숙을 돕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박성근 목사는 젊은 시절 대학생선교회(CCC)수련회에서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대한항공에 근무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교에 진학을 결심했다. 미국으로 건너와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를 공부하고 이어서 박사를 취득했다.

박성근 목사가 신학교 시절 죠일 그레고리 박사(Dr. Joel Gregory)를 만난 것이 축복이다. 조엘 그레고리 박사는 텍사스주 와코에 있는 침례교 계통의 사학 명문인 베일러 대학 안에 있는 조지 W. 트루엣 신학대학원 교수였다. 죠엘 그레고리 박사는 학자요, 교육자요, 목회자요, 탁월한 설교자다.

박 목사는 죠엘 그레고리 박사는 설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박목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라는 개념을 배웠다. 이는 청중이 삶에서 실제로 느끼는 이 욕구의 충족이 설교자의 숙제라고 믿는다.

설교자로 박성근 목사는 철저한 설교준비로 유명하다. 박목사의 강해설교 준비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먼저 본문(강해설교를 하기에 본문은 늘 결정되어 있다)의 석의(釋義)를 철저히 한다. 이는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 내기 위한 과정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살펴보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충분히 살핀다. 박성근 목사는 목회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믿는다.

둘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다. 충분한 석의(釋義)로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면 성도의 상태와 결부된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본문연구는 성경 본문 전체를 다 뒤지는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는 본문에서 발굴된 정보와 지식을 진리로 다듬는다. 이 과정에서 설교 제목과 설교의 포인트도 나온다.

셋째로 정리된 메시지와 성도의 삶을 연결하는 적절한 예화를 찾는다. 박목사는 설교에서 예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좋은 예화는 본문의 진리를 청중의 시선으로 보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청중의 삶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박성근 목사는 감사 제목이 많은 목회자다. 우선, 박성근 목사는 설교자로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을 확인하며 감사한다. 변화된 성도를 보면 목회 과정에서 겪는 고달픔이나 피곤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설교를 통해 변화된 성도의 삶이 박성근 목사가 건너온 42년 목회의 힘이요 기쁨이다.

둘째로 온 교회가 전심으로 선교에 헌신한 것을 감사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인 선교에 교회가 집중하면서 해외 선교는 물론 미국 내 다민족을 복음으로 섬기고 다음세대를 선교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도모한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성도들에게 전하며 '거룩한 쾌감'을 누린다. 말씀의 능력을 설교자와 성도들이 더불어 누리는 것은 큰 기쁨이다. 넷째로, 박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한다. 담임 목사가 봐도 감동이 되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고 그들을 축복한다.

박 목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어려움과 한계가 보인다. 캠퍼스 사역도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도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다. 인구감소의 현실에서 다음 세대는 다민족 사역으로 전환을 모색하며 기도하고 있다. 치열한 고민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박성근 목사는 여전히 푸른 꿈을 꾸는 목회자다.

강태광 기자

히즈쇼, 최대 기독교 방송 컨퍼런스 최우수상 선정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히즈쇼가 미국 기독교 방송국 컨퍼런스인 NRB 2024에서 최우수상 격인 'Children's People'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지난 2월 23일 시상식에서 히즈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Kids Beach Club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고 국내 기독교 교육 콘텐츠로는 최초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히즈쇼 성경 애니메이션은 국내 기독교 교육 콘텐츠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만 8.9만 명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히즈쇼는 성경 애니메이션 23편을 모두 영어로 더빙을 했고, 이에 최우수 콘텐츠로 선정됐다. 히즈쇼는 이번 NRB 2024에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어버전 가상현실(히즈쇼 VR) 어플리케이션(APP)과 증강현실(살아나는 성경박물관 AR) 어플리케이션(APP)을 선보여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팬데믹 후 교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히즈쇼의 실감 콘텐츠는 국내에서 이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안산동산교회(담임 김성겸 목사) 등 매년 50여 교회에서 실감 콘텐츠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히즈쇼는 금년 NRB 2024에서 국외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어버전 실감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 소개했다. 팔·다리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를 비롯한 많은 콘텐츠 관계자들이 히즈쇼 콘텐츠를 극찬하고 다양한 협업을 제시했다고 한다. 히즈쇼는 선교지 복음 전도를 위해 히즈쇼 성경 애니메이션을 계속 현지어로 더빙하고 있다. 히즈쇼는 이미 현지 교회와 여러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몽골어 버전(몽골)과 힌디어 버전(인도) 히즈쇼 성경 애니메이션을 더빙했다. 현지 아이들이 유튜브와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역을 넓히고 있다. 문의:www.hisshow.co.kr, 1644-4129.

이대웅 기자

성경필사 장학생 소감문

성경 필사가 준 축복



이 재 민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재학생

처음 미국에 와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성경을 읽겠다고 맹세했다.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되었기에 겁도 없이 하나님께 약속해 버린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지루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지루했다. 특히 제사법을 나열한 레위기는 읽기만 하면 잠이 쏟아졌다.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났다. 나는 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며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다 우연히 〈기독일보 성경필사〉 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서원기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기뻤다.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미없던 성경 내용이 살아 숨쉬는 드라마처럼 그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신기한 점은 한 구절만 읽어도 진리를 나타내고, 한 장을 읽어도 그 진리로 통일되었다.

나의 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다. 그러나 아버지 대로 내려오면서 방황하게 되어 불교로 전향하였다. 그래서 나는 불경을 읽었는데 어려웠다. 성경은 비교적 이해가 쉬웠고 삶에 주는 교훈도 구체적이었다.

성경 필사를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비난과 편견으로 낙담과 절망에 빠지는 가운데서도 성경 필사를 계속했다. 그런데 문득 나를 돌아보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쉬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갈등의 해법을 찾게 되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맘의 기쁨과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패 삼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점차 행복해졌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재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희망으로 견딜 수 있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로마서 5:5〉." 그렇다. 희망이다. 희망!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

성경 필사를 통해 내가 받은 축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확신했다. 세 번째,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족 전체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모두 모두 감사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다. 성경 필사를 마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 소중한 기회를 하락해 준 기독일보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강태광의 신앙 명시 산책 월드쉐어 USA

십자가의 길 – 성 알폰소

십자가의 길 - *성 알폰소*

주님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죽음의 길마저 가셨나이다

저도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위하여
저도 죽고자 하나이다.

이 시는 천주교 신부인 알폰소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2연으로 구성된 짧은 이 시를 묵상하면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1연은 "주님은/ 저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죽음의 길마저 가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시구에서 시인은 십자가의 길 정의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신 길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2연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아는 시인의 반응이 고백 되고 있습니다. 2연에서 시인은 "저도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위하여/ 저도 죽고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2연의 실마리는 "이제는"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아는 자신의 상태입니다. 아울러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아는 시인이 "이제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홀로 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 시는 십자가를 멀리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 신앙의 최고봉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사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신앙 고백은 자존심만 상해도 견디지 못하고, 작은 비난과 비판에 흥분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시를 쓴 알폰소는 일반 성직자로 출발했으나 스스로 수도회를 만들어 수도에 힘썼으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자로 알려집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젊은 청소년을 섬긴 사랑의 사목활동을 했습니다. 또 평생 연구하는 성직자, 지성을 갖춘 구도자였습니다.

알폰소의 본명은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Sant' Alfonso Maria de' Liguori Saint Alphonsus Liguori)입니다. 알폰소(1696-1787년)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문에 탁월함을 보인 알폰소는 불과 16세의 나이로 교회법과 민법의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학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재판에서 패소한 다음 법률계를 떠나 사제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부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라토리오회에 입회하여 신학을 공부하였고, 1726년 12월 21일 30살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자마자 1년간 떠돌아다니며 소외 청소년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도, 교육, 강론 그리고 봉사활동 실천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장해 알폰소가 사망할 때쯤 72개의 기도 모임에 1만여 명이 봉사했습니다. 알폰소는 행동하는 양심이요,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입회했고 활동했던 오라토리오회는 수도회가 아닙니다. 수도회의 성격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일반 성직자들이 수도회처럼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경건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알폰소는 인근 지역을 다니며 순회 설교 사도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알폰소는 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신자들의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교와 저술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여러 분야의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윤리신학의 대가로 존경받습니다.

알폰소는 1762년에는 산타 아가타 데이 고티의 주교로 임명되었나 주교직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732년 11월 9일 알폰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눅 4:18)."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려고 "구속회"를 설립했습니다.

"구속회"의 주목적은 도시의 슬럼가 및 빈민가 등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폰소 리구오리는 자신의 생을 사랑하는데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고해소에서 신자들을 배려하여 항상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설했던 '구속회'를 지키고 바른 수도생활에 힘쓰다 노체라에서 운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알폰소는 윤리신학에 관한 놀라운 저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윤리신학은 얀세니즘과 반 성직주의를 극복하면서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한 저서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마리아의 영광'은 마리아의 신앙을 소개하는 저서로 꼽히며, 교황 비오 10세로부터 교회박사로 선정되었고, 1950년 요한 바오로 12세는 알폰소를 고해 사제와 윤리신학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경건과 저술은 지금까지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2024 제 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찾기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
"Hyo(Filial Piety)" Writing & Art Contest
공모전 접수기간 2024. 3. 4(금) ~ 3.30(토)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자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 을 실시합니다.
미주 청소년들의 성경적 가치관 성장을 위해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개요
공모대상 Kindergarten ~ 12th Grade
공모주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미래의 모습은 뭘까요?
The future image that God desires for me?
공모방법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효사랑선교회 홈페이지에 게제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참가방법
제출기간 2024. 3. 4(금) ~ 3. 30(토)
제출양식 글짓기: 3 page(Letter Size, 12pt)
그 림: 14"*17"
(Crayon, Watercolor, Acrylic Paint, etc)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방문제출
제출처:7342 Orangethorpe Ave, Ste B 113, Buena Park, C90621
이메일: hyosarangus@gmail.com
전 화: 714-670-8004 / 714-833-2710
참 가 비 $20(Per work)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Venmo: Hyosarangus Mission)
@Hyosarangus-Mission

시상
공모대상 Kindergarten ~ 12th Grade

훈격	상금	시상인원
대상	$500	2명(글짓기 · 그림 각 부분 1명)
최우수상	$300	4명(글짓기 · 그림 각 부분 2명)
우수상	$200	6명(글짓기 · 그림 각 부분 3명)
헤이븐장학상		2명(11학년 학생에 한해서 수상)

참가 학생 전원에게 상장 수여

시상식
날짜및장소 2024. 4. 20 (토) pm2:00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문의사항
효사랑선교회
문의전화 (사무실) 714-670-8004 / (휴대전화) 714-833-2710
홈페이지 www.hyosarangusa.org
이 메 일 hyosarangus@gmail.com

주최 | 효사랑선교회 www.hyosarangus.org
후원 | OC기독교교회협의회 THE KOREAN CHURCH COUNCIL OF ORANGE COUNTY · 오렌지카운티목사회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O.C ·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THE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 오렌지 카운티 충청 향우회 CHUNG CHEONG SOCIETY OF OC · openbank · Young KIM · MICHELLE STEEL · Sharon Quirk-Silva ASSEMBLYWOMAN, DISTRICT 67 · HAVEN · California Education News 가주교육신문 · 글로벌 힐링문화협회

홈쇼핑월드

웹사이트 주소 hswus.com

확장이전 기념 무빙세일

제1탄!!

세일 기간 | 03.08(금) - 03.11(월)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맛사지체어

독점계약체결 기념 가격파괴 세일!!

홈쇼핑월드 특별세일가격

바디프랜드
팔콘 로봇 맛사지체어
$4490.00
(일시불)



WOW 유효기간 임박상품 묻지마 세일!!

쌀농부
통보리가루 겉보리가루 각 각
700g
~~$6.99~~
$1.99



한국산
아스파라거스 차 (삼각티백)
20개
~~$8.99~~
$3.99



면역의왕 기적의
이뮨-11 (유효기간 9월)
60캡슐
~~$49.00~~
1개는 $10.00
3개는 각 $5.00



GNM
보이차 분말
100g
~~$49.99~~
$9.99



금주의 원가 및 원가이하 건강제품 무빙세일 베스트5!!

GNM
건강한 간 밀크시슬
30정
~~$34.99~~
$9.99



* (원가이하 세일)

동원
침향 공진단
30환
~~$129.00~~
~~$69.00~~
$35.00



*1인 3박스 한정

지리산 도라지
홍삼청
500g
~~$59.99~~
$19.99



동원
생명과학 연구소 일품 산삼배양근 진액
1개월분
1박스: ~~$99.00~~
3박스: **$99.00**



정관장
홍삼원 골드
60포 (2개월 분)
~~$179.00~~
$95.00



* 사은품: (2박스 구매시 → 홍삼절편 5본+ 산삼환 10환 무료증정)

홈쇼핑 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팍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강준민 칼럼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일꾼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압니다.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싫어합니다.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일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성품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태도가 일하는 사람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은 일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맡겨진 일을 자기 일처럼 성심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맡긴 분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라"(마 5:41)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맡겨진 일까지도, 기쁨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자원해서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마실 물을 부탁했을 때 그가 부탁하지 않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창 24:46). 리브가는 그녀가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일꾼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보상이 혹시 늦어지면 복리로 계산해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한 일에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갈 6:9).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그에게 맡긴 일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총리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을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창 50:20).

탁월한 일꾼은 자신이 맡은 일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통해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십니다.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을 넓혀 주십니다.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반대와 갈등과 장애물과 위협과 음모와 비난과 조롱을 극복해야 합니다. 꽃길을 걷는 것처럼 쉽고 편안하게 과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섞여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중에 여러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일을 통해 받게 되는 가장 큰 상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일꾼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한 일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런 까닭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시작은 했지만 일을 끝마치지 못한 까닭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요 17:4).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끈기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조급함과 게으름과 지루함을 극복하고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맡겨진 일을 사랑하십시오. 일터를 인격 수양의 장소로 여기십시오. 또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함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시길 빕니다.

김인수 칼럼

두 종류의 교회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12)

초기 교회가 시작된 이래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다 주후 313년에 Constantine 대제의 Milano 칙령으로 교회는 자유는 얻었습니다.

이제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어떤 간섭이나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인된 여러 종교와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유일 종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Constantine 대제가 세상을 떠나고 60여 년이 지난 395년에 로마 제국의 50대 황제 Theodosius 1세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로마제국 내에 기독교 이외에 그 어떤 종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황제가 백성들에게 하나의 종교를 강요한 사례입니다. 이때부터 로마제국 내에서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어명을 어기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박해를 받던 기독교회가 이제는 황제와 황실의 든든한 배경을 가진 종교로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유일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제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고,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제국 내에는 오직 기독교인들만 있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단 한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불신자가 있어야 전도를 하는데 로마 제국의 모든 국민이 기독교인이므로 전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인 전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황실의 배경으로 이제 세상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독(사제)들은 일반 교인들이나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고, 성직계급은 왕실 다음에 위치하여 일반 귀족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회는 권력과 돈을 배경으로 할 때 전도(傳道)가 없어지고 물질과 권력과 향락에 젖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결단 없이 왕에 의해 강제로 믿게 된 교인들은 형식적으로 미사에 참여했지만, 그들 마음속은 성삼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남미의 상황을 보면 90% 이상이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인이 되지만 매주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고, 성당 앞을 지날 때 성호를 긋고 지나지만, 그들과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생에 세 번, 유아세례,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때만 성당에 들어갑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Theodosius I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것보다, 차라리 Constantine 대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믿고 싶은 사람만 믿게 한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번했습니다. Contantine 때는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지만, 국교가 된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Edward Gibbon은 그의 명저 〈로마 제국의 흥망사〉에서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을 몰락으로 끌고 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진 않지만, 그가 진단한 것이 허구에 불과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 성장했고, 자유가 주어지면 세속화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왕에 의한 강압적 신앙 강요보다, 한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전도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샬롬.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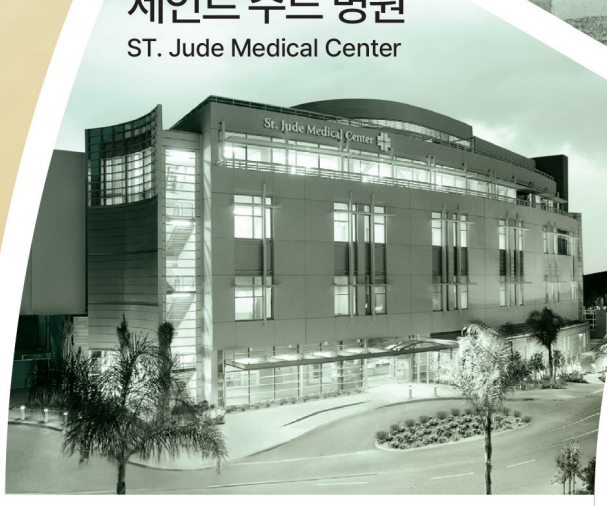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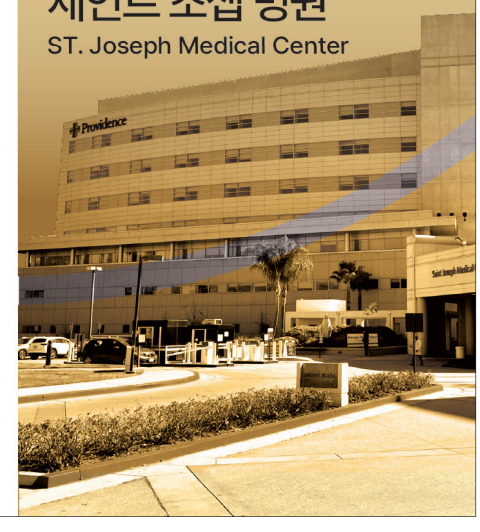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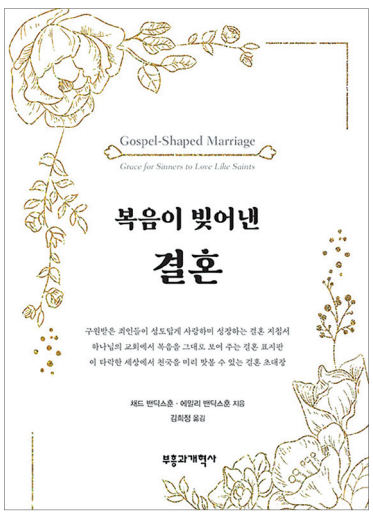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 언약을 기억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

성도답게 사랑하며 성장하는 결혼 생활을 위하여



복음이 빚어낸 결혼

채드 & 에밀리 밴딕스훈 | 부흥과개혁사 | 203쪽 15,000원

구원받은 죄인들이 성도답게 사랑하며 성장하는 결혼 지침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결혼 표지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결혼 초대장!

채드와 에밀리는 이 책 『복음이 빚어낸 결혼』에서 그리스도가 부부를 어떻게 부르시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를 격려한다

성경엔 '기억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한다. 특별히 언약과 관련된 '기억'을 요구할 때가 많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맺으시고, 자기 백성이 그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남성들은 신체에 특별한 표지를 만들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각종 제사 제도와 절기 등을 제정하여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맺으신 새 언약을 구약부터 내려오던 언약 기념의 방식을 통해(유월절 식사) 재정립하셨다. 이제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백성이 된 교회에게 주님은 '이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다. 많은 사람이 쉽게 망각하고 무시하는 것 중 하나가 혼인 서약, 혹은 결혼 언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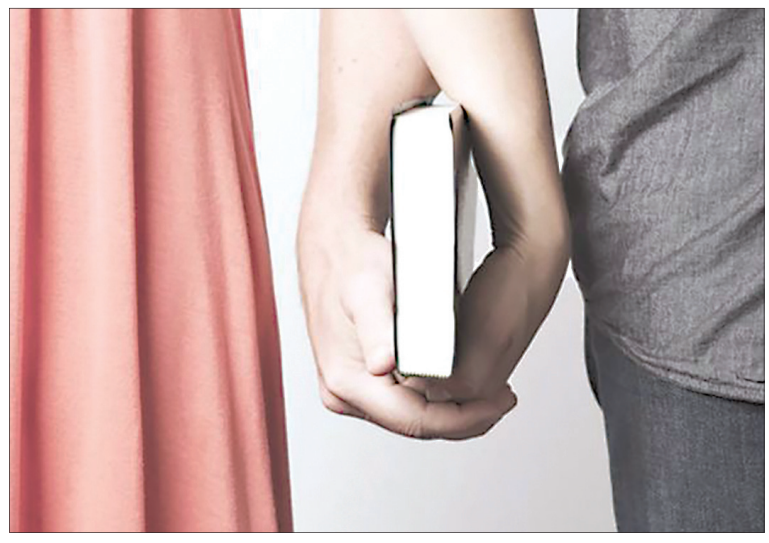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앞으로 부부가 되어 잘 살겠다고 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들의 축복과 응원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엔 부부의 언약 관계를 엄숙히 선포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파티를 벌이는 것으로 결혼식이 변질되고,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통하여 두 사람이 하나님과 수많은 증인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엄중히 공표하는 일도 사라지고 있다. 그런 주례사 없이 부모의 덕담을 듣거나 부부가 직접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누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예식이 담고 있는 풍경이나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바뀌고 있어도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잠 2:17).

모든 언약이 그런 것처럼 결혼 언약도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상대방에게 했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언약이 단순히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기초하는 것처럼, 부부가 맺은 혼인 언약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고 복음으로 그 언약에 신실할 수 있다는 진리를 부부가 삶으로 체득해야 한다.

리폼드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채드 밴딕스훈은 그의 아내 에밀리와 함께 〈복음이 빚어낸 결혼〉이란 책을 썼다. 소개 글에서 부부는 이 책의 특징으로 간결함·솔직함·통찰력을 꼽았다.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냈고, 부부의 삶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려냈고(그 말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00년 전 윌리엄 구지 목사가 쓴 〈가정에서의 의무〉라는 책에서 여러 통찰을 얻었다.

이 책은 '결혼과 OO'이라는 제목이 달린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과 성경, 역사, 은혜, 여성, 남성, 승리, 가족, 침실, 성장.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구속사(구원의 역사) 안에서 결혼을 큰 그림으로 바라본다. 또 결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찾아내고,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과 의무를 배우며, 결혼 생활에서 참 승리를 얻도록 돕고(부부싸움에서 서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 부부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지만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가르치고, 성적 친밀함을 누리는 법과 함께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고 권면한다.



부록에서는 책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부부가 책의 각 장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많은 부부가 현재의 결혼 생활을 평가할 때, 개인의 행복과 개인이 누리는 결혼 생활의 혜택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의 약속이지, 결혼의 유익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의 언약에 신실할 때, 행복과 만족은 따라온다. 아이러니하게도 각자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결혼은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향하고 추구하는 기쁨을 주지도 못한다. 언약에 흐르는 DNA는 복음의 은혜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부부의 결혼 생활을 견고하게 붙들어 준다.

사상 초유의 이혼율과 결혼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약에 불성실한 부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빚어낸 결혼 생활을 영위할 때, 세상은 부부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채드와 에밀리 부부가 쓴 〈복음이 빚어낸 결혼〉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또 세상에 나타내는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

3월, 작가들의 말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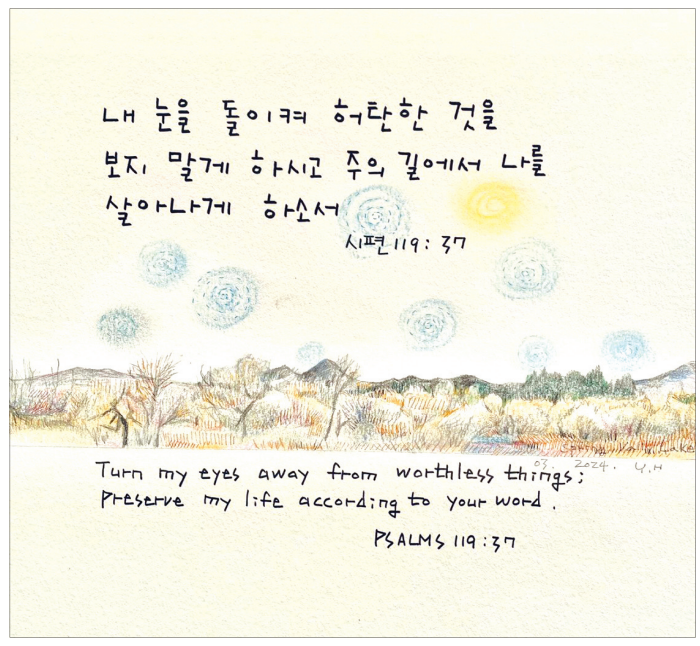
▣ 김기석-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

예수님은 '거룩함'이라는 척도가 지배하는 유대교 사회적 세계에 새로운 척도를 제시했다. '자비'가 그것이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타자의 약점까지도 품어 안으려는 마음이다. 예언자의 말은 듣기 좋은 목소리로 부르는 사랑 노래가 아니다. 그들의 말은 둔감한 영혼을 깨뜨리는 도끼날일 때도 있고,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깨우는 봄볕일 때도 있다.

가냘픈 갈대 피리 같은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어 하늘의 선율을 연주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당신 손길의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가냘픈 가슴은 한없는 즐거움에 젖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발합니다." 예수 정신은 어떤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노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만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아낌을 경험할 때 사납고 무정한 세상을 건널 힘이 우리 속에 유입된다.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듯이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욕망에 사로잡힌 영혼은 '이제 그만'이란 말을 모르기에 삶을 한껏 누리지 못한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 선교학철학,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라스베가스 한인교회를 가다 1

즐거운제자교회 송삼용 목사

미주 기독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미주 각 지역에서 성실히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한인 목회자들의 고군분투기를 기록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한인밀집 지역이 아닌 도시에서 열정을 쏟고 있는 목회자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보도한다. 첫번째 순서로 라스베가스 즐거운제자교회 송삼용 목사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송삼용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즐거운교회제자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70명을 찾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다. 한인인구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라스베가스에서 많은 수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소수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겠다는 것이 담임 송삼용 목사의 목회 방향이다. 송삼용 목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은 2011년, 그간 특수 목회 중에도 특별한 과정들을 거쳐왔던 그가 최근 목회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이 70명의 제자를 찾아 양육하는 것이었다. 현재 그의 설교는 해당 지역에서 꾸준히 찾는 이가 있는 스테디셀러 설교가 됐다. 한인마트 등에 설교 CD를 놔두면 곧잘 없어져서 CD 갯수를 50개 까지 늘렸는데 그 마저도 잘 나가게 되자 청년들이 유튜브를 개설해 송 목사의 설교를 올리고 있다. 그의 사모인 도현아 목사 또한 풀러신학대학교에서 내적치유를 전공한 박사로서 즐거운교회제자교회 목회를 돕고 있다. 특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라스베가스 한인들의 치유를 감당하고 있다.

이 부부의 라스베가스 정착기는 정말 특별하다. 송 목사가 뉴욕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또 같은 시기에 사모인 도 목사가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쳤을 때 미주에 치유사역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당시 교단 어른의 말만 듣고 무작정 시작한 목회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당시 조이풀교회가 교인들이 다 떠나면서 없어질 위기라는 소리를 들었고 송 목사와 도 사모의 전공이 정말 딱 맞는 사역지라는 설명만 듣고 라스베가스로 향했던 것이다.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왔지만 정작 출석하는 성도는 1명 뿐이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렇게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은 홈리스들 뿐이었다.

"라스베가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라스베가스 즐거운제자교회 송삼용 목사와 사모 도현아 목사. ⓒ기독일보

라스베가스는 치유사역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야전병원 원장, 하늘의 보급품으로 견뎌. 넬리스 공군 기지에서 두번째 목회 시작 3~4시간 상담은 기본, 6시간 상담하기도

정말 치유사역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교단 어른으로부터 이곳에 도박중독에 빠지거나 가정파탄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다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여건이 든던 것과 달라 교회 운영이 너무 힘에 부쳐 한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험난한 라스베가스 첫 목회

막상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된 목회지만 안되어도 이렇게 안될 수는 없었다. 애시당초 홈리스 사역을 하고자 했던 계획은 없었음에도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홈리스 뿐이었다. 측은한 마음에 아침을 제공한 것이 소문이 나면서 홈리스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홈리스 숫자가 더 늘어 나게 됐다. 일반 성도들이 그 사이에 추가로 오기도 했지만 결국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홈리스를 쫓아내야 한다"는 충고만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았다. 그 사이 교회의 렌트비는 자녀들이 벌어서 감당했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일반 성도들이 송 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제자교회 미술 클래스 수강생들이 전시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했다. ⓒ기독일보

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제가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들이랑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다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길 수 있지만 이 홈리스들은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목사의 양심상 저 분들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창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홈리스들 중에는 도박중독자들도 많아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다 받아주고 상담해주고 했지만 지역에서 오히려 가짜 박사라고 헛소문이 나서 곤욕을 치룬 적도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신기한 일들도 많았다. 목회를 시작한지 1년 정도 지나자 이제는 렌트비도 더는 내지 못할 형편이 됐을 때 전혀 예상에 없던 독지가들이 와서 렌트비를 냈다. 그리고 음식후원이 끊이지 않았다. 송 목사의 말에 따르면 어디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다고. 덕분에 렌트비는 해결하지 못해도 교회 냉장고에 음식은 항상 꽉 찼다고 한다. 간혹 독지가들의 손길이 있다해도 결국 장기적으로 렌트비 해결책이 나지 않자 문을 잠그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군대 갔다왔지? 여기 라스베가스는 영적인 전쟁터다.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야전병원 의사인 네가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제가 야전병원 원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저는 뭐 먹고 살죠'라고 물었습니다. 야전사령부는 본부인 하늘에서 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듣고보니까 그랬죠. 실제로 보급품들이 정말 숨넘어 갈 때쯤이면 도착했습니다. 카드를 돌리다 돌리다 더는 안될 정도로 꽉 차면 누가 와서 1만 불을 헌금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두번째 연단과정은 상담목회…이후 교회의 방향성 정립

하지만 교회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면서 이 홈리스 사역도 중단됐다. 건물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넬리스 공군기지와 가까워 지리적으로 홈리스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건물 사용 조건에 따라 교단도 이때 미국교단인 제자회(Disciples of Christ)로 가입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역 공군부대 미군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인 여성들이 다수 교회를 나오게 됐다. 라스베가스 두번째 목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두번째 여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예삿일이고, 또 술을 달고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 신세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데 보통 3-4시간은 기본이고 6시간 이상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담목회는 우선 모든 고민들을 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상담의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교회를 사용하다보니 새벽예배도 못드리고 상담할 시간에도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제약이 컸다. 도저히 이대로는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년6개월만에 독립해서 새 건물로 나오기로 결심했다. 해당 미국교회가 워낙 렌트비로 어렵게 굴자 교단 본부에 하소연한 것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역에 노회장이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했어야 할 일이라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물을 찾으면 렌트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렌트비를 보장받고 현재 이 곳에 온 것입니다. 오자마자 교회의 문들을 다 열어 두었습니다. 저는 엘에이에서 공부할 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 놓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었습니다. 누가 그러다가 마이크 시스템을 도둑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도둑이든 것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곳에서는 항상 24시간동안 히터나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항상 예배당 반대편 방 냉장고에는 먹을 것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 김치랑 햇반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차를 마시고 먹고 싶을 때 또 먹는 그렇게 오픈된 교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툭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라스베가스에는 한인전문 상담센터 없어... 정신건강 미션센터 지부 설치, 돈으로 오염된 도시 정화하는 사역

➔ 18면 기사 [라스베가스 한인교회를 가다1] '즐거운제자교회 송 삼용 목사' 에 이어서

새로운 곳에서는 사모 도현아 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라스베가스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LA 정신건강미션센터 지부를 교회에 만들었다. 엘에이와 달리 라스베가스에는 한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센터가 없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현재 도 목사는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다양한 상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아트 테라피 클래스를 열어서 믿지 않는 이들도 같이 미술을 배우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0명 제자 세우기 위해 성경공부에 올인한 교회

늦깎이 신학생으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송 목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우여곡절 끝에 목회 10년차를 맞았을 때였다.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이사만 다니고 라스베가스만 공부하게 된 것이 다 인 것 같았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목회의 열매가 없고 앞으로는 정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조급함이 몰려왔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잘하는 것을 하고 가르치라고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라스베가스에 세우라고 하는 강한 비전이 마음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움직이면 라스베가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즐거운제자교회에는 새벽예배를 드리고 7시부터 성경공부를 하는 성도들이 많다. 새벽예배에는 주일예배와 비슷한 인원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 등 성도들의 헌신도가 매우 높은 교회다. 수요일에도 6시 예배 이후에 8시까지 성경공부를 하고 있고 주일에도 점심을 빵이나 계란으로 간단히 해결하면서 다 성경공부에 매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바쳤던 험난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송 목사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원했다. 그것은 바로 후임자를 위한 교회 건물 매입이었다.

"저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후임자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교회 건물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를 보통 산다고 하면 성도들 다 부담이 될 것인데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요"

송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진 후 얼마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은 테슬라로 팔리게 됐고 곧 건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교단에 건물을 사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돈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송 목사는 '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대답했다. 10만불을 어떻게든 교회 건물을 위해 내놓겠다고 작정했다. 그러면서 교단본부에 건물을 좀 찾아 달라고 했다. 송 목사의 진정성을 알아본 교단본부에서 교회건물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군데 후보가 나왔지만 기대하던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

10여 년 전 라스베가스에 올 때만해도 5에이커 땅에 성도들이 많던 한 교회가 그 사이에 갑자기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교회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교단 본부에서는 이 곳을 즐거운제자교회와 연합해서 교단의 미션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해 온 것이다. 현재의 미국교회도 유지하고, 즐거운제자교회도 사용하고, 교단의 미션센터로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라스베가스 목회를 통해 체험했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에 한인 신학교가 부족한데 신학교 분교나 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성경공부도 하고 다양한 미술 및 음악 클라스를 열어서 한인들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애초에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건물이 감당이 안되던 차에 미션센터라는 큰 기회를 결국 하나님이 주시게 됐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작은 한인교회가 거꾸로 교회를 사고 있는 것에 감동해 미국교단이 우리를 도와주자고 마음을 모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스베가스가 돈에 오염된 도시인데 강력한 신앙으로 영적인 정화를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대원 기자

영국에서 가장 신앙 친화적인 기업은 롤스로이스

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가 신앙이나 신념을 가진 근로자를 위한 영국 최고의 직장 중 하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기업 REDI(Religious Equity, Diversity & Inclusion) 지수를 모니터한 첫번째 조사에서 경영 컨설팅 회사 바링가 파트너스와 함께 롤스로이스는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 업체는 종교자유 및 비즈니스 재단(Religious Freedom and Business Foundation)이 런던 세일즈포스 타워(London Salesforce Tower)에서 개최한 첫 번째 '직장에서의 신앙'(Faith at Work) 컨퍼런스에서 영예를 얻었다.

재단은 "두 조직 모두 다양성, 형평성, 포용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종교(비유신론적 신념 포함)를 완전히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업체는 모든 신앙과 신념을 가진 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만들었다. 이는 유지, 채용 및 궁극적으로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지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기업의 점수를 매긴다. 그중에는 다양성 교육에 종교를 포함하는지, 직원의 종교적 요구를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 종교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REDI 지수에서 롤스로이스와 바링가를 이어 에너지 기업 오보 에너지, NATS 및 템스 워터가 뒤따랐다. FTSE 100에 등재된 신앙 친화적 기업 상위 10개에는 롤스로이스 외에도 BT 그룹, 슈로더, 윗브레드, HSBC, 오카도 그룹, 피닉스, 앵글로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유틸리티, 세인트 제임스 플레이스가 있다.

최근 개최된 '직장에서의 신앙'(Faith at Work) 컨퍼런스에서는 신앙과 믿음을 포용하는 문화를 수용하는 기업이 어떻게 인재 확보, 유지 및 전반적인 생산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는지 조사했다. 종교 자유 및 비즈니스 재단(Religious Freedom and Business Foundation)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FTSE 100 기업은 인종, 능력,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대한 직원 리소스 그룹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외 기업 중 종교 또는 신념에 대한 직원 리소스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이미경 기자

남가주 충청향우회 32대 회장에 홍광일

남가주 충청향우회 회장 이취임식을 오는 3월 9일 오후 5시에 아로마 5층(3680 Wilshire Blvd. LA, CA 90010) 뱅퀫 홀에서 갖는다.

남가주 충청 향우회 32대 회장에 홍광일(전 샌퍼난도밸리 한인건설협회 회장, 전 샌퍼난도밸리 한인상공회 회장, 전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창회 회장 역임)씨가 선임됐다.

충청북도 옥천이 출신인 홍 회장은 신년 사업으로 한인 공동체를 돕고 충청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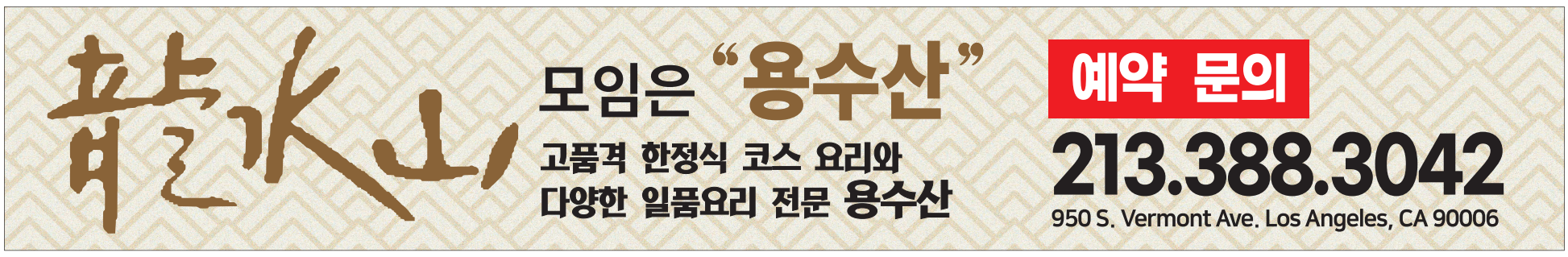
2024년도 사업 계획으로 ▲3.1절 행사 ▲한인의 날 행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6.25행사 ▲8.15광복절 행사 ▲단풍 구경 ▲골프 대회 등 교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임원진으로 수석부회장 장충룡, 행사 협력 부회장 헨리 김, 의료국장에 김진세 박사, 사무총장 윤태환 목사를 발표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을 영입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꾀했다. 박철규, 이규성, 박건우, 이창건, 안영재, 이순희, 쥴리 김, 사무엘 서, 이은지로 역대 회장들은 이사가 된다.


남가주 충청양우회 홍광일 회장

준비위원들은 "2024년도 남가주 충청인을 이끌어 갈 32대 홍광일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문의는 준비위원 Henry Kim(562-478-8888)이나 장충룡(213-503-2526)에게 하면 된다.





Open Stewardship Foundation

www.openstewardship.com



행복을 나누면 더 많은 꿈들이 이루어 집니다

행복나누기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과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재단 수혜단체 공지

2023 OPENSTEWARDSHIP PROGRAM RECIPIENTS LIST

ABC Education Foundation
Accompany Worldwide
All Nations Church Growing-Up Reading Clinic
Altogether In Love
America Wheat(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Inc.
American Acupuncture & Alternative Medicine Association (AAAMA)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Bridgeway Family Life Center
Cal Give Foundation
Caleb Mission for The Disabled
Christian Counseling Services
Circle of Friends in Love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Communities Actively Living Independent & Free (CALIF)
Divorce Recovery Ministry, Inc.
Edenhurst Community Center
EIS Family A38
EPICENTER Foundation
Family Saver Center
Father's Table Mission
Fristers
G.I.F.T (Global, Individual, Family, Transformation) for Community
Good Hands Foundation
Good Neighbors USA
Good Seed Mission (FRIENDS HELPING FRIENDS WITH SPECIAL NEED)
Grace Community Service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Happy Village - The Korea Daily
Help People In Need
Home on the Green Pastures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Hyosarangus Mission
IATIA Cherish Mission
Intellichoice
Jesus Love World Mission
Joy Research and Service Center for the Disabled
Jubilee Music Academy
KidSingers
KOA Dance Federation
Korea 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Inc.
Korean American Coali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of SF & Bay Area (KACCSF)
Korean American Community Coali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Inc.
Korean American Dementia Center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Inc (KFAM)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 (KAFLA)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KASEC)
Korean Resource Center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KOSAA)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L.A. Mom and Dad Mission
LNC (Love & Care) Foundation
Love In Music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Micah Healing Ministry
National Veterans Foundation
Nothern California Life Line
OASIS Center International
PAVA World
Project Kinship
Seesaw Communities Inc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Shalom Life Line
Siloam Healing Mission Center
Somang Society
South Bay Ko-Am Senior Center, Inc.
Street Company
Texas Milal Mission
The Angeles Dream Foundation
The Branch of Almond Tree
The KAWA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of S.F Valley
The LOCK Ministry
The Well Mission
UDLA (Unification of Disabled Latin Americans)
Vision Care Service West
Vision Youth Charity Center
Watered Garden Missio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Youstar Foundation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청지기재단 | 213.593.4885 |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